

오 하나님, 저의 삶은 당신과의 지속적인 대화,
위대한 대화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끔씩 수용소 모퉁이에 서서
당신의 대지를 밟으며
당신의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둘 때,
불현 듯 얼굴 위로 눈물이,
깊은 정감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 에티 힐레쥔이 베스터보르크 수용소에서 적은 글 -

‘침묵의 시간’과 같은 훈련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다.
공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체험이다.
먼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쓸데없는 쓰레기와 부스러기,
온갖 폐기물들을 마음에서 치워야 한다.
아주 조그만 쪼가리라도
내면에 방치하면 금방 수북해져서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더 깊이 느끼고 사고하게 해 주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
잡동사니 역시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장 내밀한 자아를
광활하고 텅 빈 평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상의 목표로 삼아라.
눈속임에 능한 덩불들이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무언가가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테니

- 에티 힐레쥔, <가로막힌 삶, 베스터보르크에서 온 편지> -

시편 139편

- 1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 2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 3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 4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 5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 6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 7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 8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다 계십니다.
- 9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 10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 11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 12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 13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 14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 15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 16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 17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 18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 19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 20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 21 주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 22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 23 하나님, 나를 살살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 24 내가 나쁜 길을 지나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